

향/장

ALL ABOUT BEAUTY

당신을 더 아름답게 할 뷰티 노하우

감사의 달, 최고의 선물 리스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엄마와 딸
머리부터 시작하는 안티에이징

MAY 2020 VOL.619



SINCE 1958

<향장>은 1958년 '화장계'라는 이름으로 창간한 이후 현재까지 63년간 619호를 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월간 뷰티 매거진입니다.

MAIL
HYANGJANG@MCKKOREA.COM

WEB
WWW.APGROUP.COM

COPYRIGHT 2020
AMOREPACIFIC

(주)아모레퍼시픽의 동의 없이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02	NEWS-PRODUCT	혁신적인 신제품	24	SPECIAL	엄마와 딸, 함께 나이 든다는 것	46	REVIEW	자외선 차단제 집중 비교 분석
04	NEWS-TREND	상큼한 토마토 립	34	SPECIAL	나이대별 스킨케어	48	REVIEW	믿고 보는 품평단의 생생 후기
06	MAKEUP	봄처럼 싱그러운 커풀 메이크업	40	PRODUCT	헤라	50	HEALTH	모발 안티에이징
14	MAKEUP PLAY	헤라의 새로운 아이 컬러	42	PRODUCT	아모레퍼시픽	52	ESSAY	장미, 향수, 그리고 여자 이야기
18	PRODUCT	베스트 선물 아이템	44	PRODUCT	설화수	56	EDITOR'S PICK	추천 선물 세트

발행일 2020년 5월 7일 발행 통권 619호 발행인 서경배 편집인 안제홍 발행 (주)아모레퍼시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인쇄 (주)태신인쇄 02-853-6574 인쇄인 서명현 제작 문의 이기태 제품 문의 080-023-5454 기획·편집 MCK Publishing Co., Ltd 에디터 최향진, 김희진, 이성진, 안새롬 디자인 펜타그램(Pentagram)

※<향장>은 WWW.APGROUP.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전국의 아모레 카운슬러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는 방문판매용 매거진입니다.

자외선으로 무너지는 코어콜라겐을 보호하여 한치의 흔들림 없는 탄탄한 피부

타임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데이 디펜스
SPF50+ PA++++



AMOREPACIFIC



세상에 없던 화장품

지금까지 이런 화장품은 없었다! 자외선 차단과 동시에 안티에이징 케어까지 해주는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데이 디펜스와 메이크업 전에 바르는 신개념 파우더 헤라 에어리 블러 프라이밍 파우더를 소개한다.

마스크 없이는 외출할 수 없는 코로나19 시대이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다시 찾아올 미세먼지와 강렬해진 자외선 때문에 섣불리 외출하기가 두렵다. 이런 환경적 변화에 맞춰 아모레퍼시픽과 헤라에서는 세상에 없던 신개념의 스마트한 화장품을 출시했다. 자외선뿐 아니라 초미세먼지에 의한 자극을 완화하고, 이와 동시에 안티에이징 세럼을 바른 듯 피부 노화까지 막아주는 자외선 차단

제와 메이크업 전에 바르면 피부의 결점을 블러 처리한 듯 매끈하게 보정해줄 뿐 아니라 파운데이션의 밀착력을 높이고, 미세먼지가 피부에 달라붙는 것을 예방하는 프라이밍 파우더가 그 주인공이다.

아모레퍼시픽의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데이 디펜스는 아모레퍼시픽의 강력한 안티에이징 제품인 타임 레스폰스 라인에 새롭게 추가된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은 기본이고 라인의 대표 안티에



- 1 헤라 에어리 블러 프라이밍 파우더. 8.5g, 6만원.
- 2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데이 디펜스 SPF50+/PA++++. 30ml, 17만원.
- 3 헤라 HD 퍼펙트 파우더팩트 SPF30/PA+++ . 10g, 5만5천원.
- 4 헤라 HD 퍼펙트 파우더. 01 일루미네이트, 10g, 5만5천원.
- 5 헤라 HD 퍼펙트 파우더. 02 인비저블, 15g, 5만5천원.

이징 성분인 앵솔루티™를 함유해 자외선으로 무너지는 코어 콜라겐을 보호해 하루 종일 한 치의 흔들림 없는 탄탄한 피부를 지켜주는 효과까지 제공한다. 또 일반 재배 녹차 대비 아미노산 함량이 4.5배인 극차광 녹차 성분을 함유해 초미세먼지에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다 건강한 피부로 가꿔주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세럼처럼 촉촉하고 가벼운 텍스처로 1년 내내 실내외 어디서나 바르기 좋으며, 수용성 자외선 차단제가 함유되어 있어 자외선으로부터 더 촘촘히 피부를 지켜주는 놀라운 제품이다.

헤라의 에어리 블러 프라이밍 파우더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사용하는 신개념 파우더로 함께 구성된 브러쉬를 이용해 파우더를 얼굴에 얇게 바르면 모공을 가리고 피부를 정돈해 피부 바탕을 매끈하게 다져준다. 크림에서 오일을 제

거한 반죽 제형이라 피부 수분은 지켜주고 다른 스킨케어 제품과 묻치는 일 없이 얇게 발라지며, 흡유 파우더가 24시간 동안 피부 유분을 조절해 하루 종일 화사하고 보송보송한 피부가 유지된다. 이 덕분에 파운데이션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 대비 지속력이 무려 30%나 높은 놀라운 효과를 자랑한다. 또 미세 돌기 파우더가 오염 물질을 튕겨내 미세먼지가 얼굴에 달라붙는 현상도 예방한다. 한마디로 완벽하고 깨끗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유지시켜주는 만능템. 베이스 메이크업을 마친 후 헤라의 HD 퍼펙트 파우더와 파우더 팩트로 마무리하면 더 완벽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으니 참고할 것.

마스크에 화장이 묻거나 미세먼지가 얼굴에 달라붙어 잡티나 노화를 촉진하는 현상을 예방하고 싶다면 이 스마트한 제품으로 아침 메이크업 루틴을 바꿔보기 바란다. **LD**



토마토처럼 붉은 입술

잘 익은 토마토가 연상되는 레드 오렌지 립으로 생동감 있는 톤 업 메이크업을 완성해보자.



LOUIS VUITTON LV



PRADA



DOLCE & GABBANA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볼륨 매트
#173 사위 토마토.
3.5g, 3만5천원.



TOMMY HILFINGER



PRABAL GURUNG



LOUIS VUITTON

SIES MARJAN

CHANEL

이번 시즌 단 하나의 립 컬러를 선택해야 한다면, 단연 레드. 그 중에서도 여름에 어울리는 청량한 오렌지 레드 빛을 지닌 잘 익은 토마토 컬러가 대세다. 지난 몇 시즌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매트한 토마토 레드 립은 트렌디한 컬러로 각광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글로시한 질감의 글로시 토마토 립까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매트한 텍스처나, 글로시한 텍스처나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볼륨감 넘치는 통통한 입술에 토마토 컬러 립을 연출하는 것.

이런 트렌드에 맞춰 2020 봄-여름 시즌 여러 런웨이에서는 다양한 텍스처와 메이크업 패턴의 토마토 립을 선보였다.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하고 채도가 높은 토마토 레드 립스틱을 입술 가득 바른 루이비통의 모델들이나 메이크업 아티스트 루치아 피카의 지휘 아래 입

술 안쪽에 토마토 과즙을 한 방울 툇 떨어뜨린 것처럼 연출한 샤넬의 모델들은 더없이 매력적이었다. 이 밖에 다른 색조 화장을 최소화하고 립스틱만 원래 입술보다 크게 발라 오버 립을 연출한 시스마잔이나 마린 세레 쇼에서도 토마토 레드 컬러 립스틱이나 립글로스로 시선을 사로잡는 레드 립 메이크업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이 트렌디한 립 메이크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핵심은 의외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맑고 깨끗한 토마토 레드 립이 돋보이게 하려면 깨끗하고 가벼운 베이스 메이크업과 매끈한 입술이 관건. 채도가 높을수록 입술 각질이 도드라질 수 있으므로 기초 화장을 할 때 립밤이나 립 크림을 미리 발라두어 가라앉히거나, 일주일에 2-3회 립스크럼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10

EDITOR: AHN SAE ROM, PHOTOGRAPHY: WWW.GETTYIMAGESKOREA.COM

딜리셔스 립 모멘트

버터 스카치, 사워 토마토, 트리플 등 맛있는 음식을 꼭 닮은 스파이시한 립 메이크업.

그리고 이들이 선사하는 행복한 순간.

photographer KIM HEE JUNE

editor CHOI HYANG JIN



SOUR TOMATO

싱그러운 과즙미가 넘치는 톤온톤 메이크업을 원한다면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블룸 매트 #173 사워 토마토를 볼 앞쪽에 톡톡 두드린 후 퍼프로 펴 발라 사랑스러운 홍조를 연출하고, 입술에 꼭 채워 발라보길.

TRUFFLE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볼륨 매트 #480 트러플은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MLBB 컬러로 여자뿐 아니라 남자가 발라도 좋다.





BUTTERSCOTCH

부드럽고 달콤한 버터 스카치처럼 입술에 감미롭게 녹아드는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볼륨 매트 #459 버터 스카치로 완성한 메이크업 룩.



ETIQUETTE

은은한 핑크 누드 톤의 MLBB 컬러로 어떤 룩에나 잘 어울리는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볼륨 매트 #412 에티켓을 입술에 바르고,
눈과 볼에는 헤라 새도 듀오 #08 버블리를 발라 상큼한 룩을 완성했다.





PINK SALT

이 세상에서 가장 여성스러운 컬러를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단연 핑크.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볼륨 매트 #115 핑크 솔트는 프레쉬한 핑크 컬러로 얼굴을 화사하게 밝혀준다.



ROSE PEPPER

부드럽지만 톡 쏘는 매력을 지닌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볼륨 매트 #337 로즈 페퍼를 입술에 가득 채워 바르고, 헤라 색도 듀오 #02 이지고잉 중 비스크 컬러를 눈두덩과 아랫눈썹 라인에 발라 자연스러운 음영을 주면 상큼한 완벽한 룩이 완성된다.

MODEL: KIM A HYUN/PARK JIN YOUNG
MAKEUP: JAMIE YOON-0000000000(JAMORE PACIFIC LUXURY MAKEUP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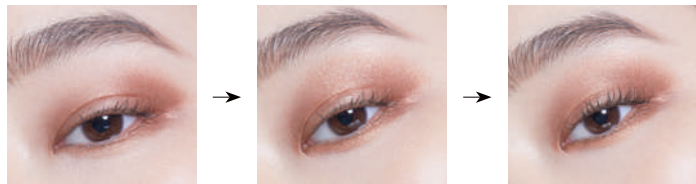


봄을 위한 아이 메이크업

헤라의 새로운 색도 듀오로 완성한 4가지 아이 메이크업.

LOOK 1. SPARKLING BROWN

음영 표현의 기본인 브라운 컬러로 화사한 룩을 연출하고 싶다면 헤라 색도 듀오 #05 클래식처럼 은은한 시머링 펄이 든 색도를 선택할 것.



step 1 헤라 색도 듀오 #05 클래식 중 카멜백 컬러를 눈머리와 눈꼬리에 바른 후 가운데로 그라데이션되게 해 눈 모양을 잡아준다.
step 2 눈 중앙과 아랫눈썹 라인에 #05 클래식 중 카시아 컬러로 포인트를 주어 입체감을 더한다.
step 3 헤라 리치 롱래시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79호 블랙을 속눈썹 한 올 한 올에 섬세하게 바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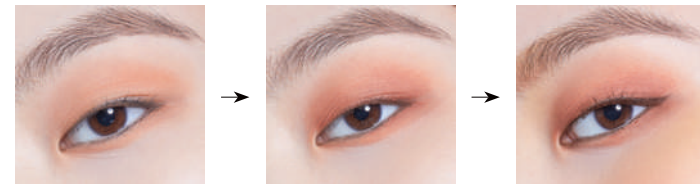
헤라 색도 듀오 #05 클래식, 4g, 3만8천원.



photographer PARK HYUN JIN
editor CHOI HYANG JIN

LOOK 2. SUNSET CORAL

외꺼풀 눈이라면 펄이 든 색도를 발랐을 때 자칫 눈이 부어 보일 수 있으므로 파우더리한 질감의 코랄 색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석양빛을 띠는 번트 코랄 컬러는 이번 시즌 가장 트렌디한 컬러다.



step 1 헤라 색도 듀오 #04 피키 중 캔터루프 컬러를 아이홀 전체에 바르고 아랫눈썹 라인에도 연결해준다.
step 2 헤라 색도 듀오 #04 피키 중 짙은 선다운 컬러를 아이라인을 따라 바른 뒤 그라데이션한다.
step 3 헤라 아이 디자이너 펜셀 2호 브라운으로 속눈썹 사이를 메우는 듯 아이라인을 그린다.



헤라 색도 듀오 #04 피키, 4g, 3만8천원.



LOOK 3. SHINY BURGUNDY

남다른 느낌을 완성해줄 특별한 컬러를 찾고 있다면 헤라 색도 듀오 #12 페피에 도전해보길. 실버 펄과 피노 누아르 와인을 연상시키는 맑은 버건디 컬러를 조합한 색도로 감각적인 스타일을 연출하기 좋다.



step 1 헤라 색도 듀오 #12 페피 중 샴페인 컬러를 동공 위아래 부분을 중심으로 바른다.
step 2 아이라이너 브러시를 미스트에 적신 후 헤라 색도 듀오 #12 페피 중 크림스 컬러를 묻혀 레드 아이라인을 그린다.
step 3 크림스 컬러를 눈꼬리와 눈머리에 발라 음영감을 표현하고 아이홀에 깊이감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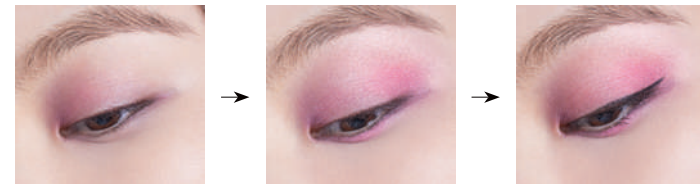


헤라 색도 듀오 #12 페피, 4g, 3만8천원.



LOOK 4. ROMANTIC VIOLET

퍼플은 메이크업을 하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컬러지만 핑크와 그레데이션해 은은하게 표현하면 봄기운이 가득한 화사하고 여성스러운 룩을 완성할 수 있다.



step 1 헤라 색도 듀오 #08 버블리 중 페리윙 컬러를 눈머리부터 중앙 쪽으로 넓게 펴 바르고, 아랫눈썹 라인 안쪽과 바깥쪽에도 발라 포인트를 준다.
step 2 헤라 색도 듀오 #08 버블리 중 로즈퀸츠를 눈꼬리 부분에 바르고 퍼뜨려 물든 듯 연출한다.
step 3 헤라 아이 디자이너 펜슬 1호 블랙으로 눈꼬리가 긴 아이라인을 그린다.



헤라 색도 듀오 #08 버블리, 4g, 3만8천원.

MODEL: KIM RO SA KIM EUN SEO, MAKEUP: JAMIE YOONJANE PARK (AMORE PACIFIC LUXURY MAKEUP TEAM), HAIR: PARK CHANG DAE, STYLING: PARK MI KYUNG

내 생애 최고의 선물

감사의 달을 위한 선물추천 리스트 6.

photographer PARK JONG WON

editor CHOI HYANG JIN

#생기광채
#쿠션왕
#아우라쿠션

헤라 UV 미스트 쿠션
15g x 2, 5만원.

“출시 직후부터 지금까지 내 최애 쿠션으로 지인 중 누군가 쿠션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이 제품을 선물하곤 한다. 물론 받는 사람마다 100% 만족했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성진

헤라 UV 미스트 쿠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마치 수분 에센스를 듬뿍 바른 듯 촉촉한 보습력을 유지하고, 신비로운 아우라를 뽐내내는 패키지와 피부에 생기 넘치는 광채를 선사하는 쿠션 파운데이션. 완벽한 커버를 선호하는 사람을 위한 '커버', 물방울이 터질 듯한 수분감을 원하는 사람을 위한 '울트라 모이스처' 2종이 각각 여섯 가지 컬러로 세분되어 있어 피부에 딱 맞는 것으로 골라 선물하기에 그만이다.



“프리메라 화장품은 순해서 나는 물론, 남편과 아기까지 온 가족이 함께 쓴다. 지금까지 사용해본 제품이 모두 만족스러운 데다 가격도 적당해 누군가에게 선물할 일이 있으면 프리메라 매장부터 찾게 된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김희진

#착한화장품
#순한케어
#남편선물

프리메라 맨 오가니언스 트리트먼트 워터, 180ml, 3만원.
프리메라 맨 오가니언스 모이스처라이징 에멀전, 150ml, 3만원.

프리메라 맨 오가니언스 트리트먼트 워터 & 모이스처라이징 에멀전

아버지나 남편에게 선물할 화장품을 고를 때면 화장품이 피부에 맞는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순한 성분만을 엄선해 생산하는 착한 화장품인 프리메라 남성 라인인 맨 오가니언스라면 이런 고민은 접어두어도 된다. 파라벤, 광물성 오일, 합성색소, 인공 향 등을 배제하고 남성이 선호하는 순하고 산뜻한 텍스처로 완성한 트리트먼트 워터와 모이스처라이징 에멀전은 모두 남성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크림

소중한 사람에게 귀하고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을 하고 싶다면 진귀한 성분에 장인 정신이 더해져 탄생한 아모레퍼시픽의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크림이 제격이다. 40여 년간 가꿔온 아모레퍼시픽만의 돌솥이 차밭에서 자란 녹차 품종 중 22만8천 번에 걸친 연구 끝에 개발한 오직 피부만을 위한 뷰티 녹차 장원3호™의 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진귀한 장원3호™의 안티에이징 성분 앵솔루티™가 젊고 건강한 피부로 가꿔준다.

“받는 순간 반가운 마음에 미소를 짓게 되는 선물이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의 제품도 그중 하나다. 바르자마자 피부를 쫘득하게 잡아주어 효과를 즉각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선물의 가치를 바로 알아챌 것이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영

#궁극의안티에이징
#귀한성분 #력서리스킨케어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크림 50ml, 50만원.



구딸 파리 뒤엘 오 드 퍼퓸

모던하고 감각적인 레더와 소프트 우디 계열의 남성용 향수지만 파라과이 페티그레인과 마테 잎의 향 덕분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럽게 변해 여성이 사용하기에도 부담 없는 향이 특징이다. 개성 강한 그에게 선물하고, 함께 사용하기 좋은 향수. 내 남자를 위한 특별한 향을 찾고 있다면 뒤엘을 선택해보길.

“구딸 파리는 지나치게 진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아 누구나 좋아할 만한 향수를 선보이는 니치 향수 브랜드다. 그중 뒤엘 오 드 퍼퓸은 독특하면서도 편안하게 마무리되어 까다로운 남자에게 선물하기 좋은 향수다.”

-〈마리끌레르〉뷰티 디렉터 윤희진

#커플향수
#홍차향수
#매혹의향

구딸 파리 뒤엘 오 드 퍼퓸. 100ml, 21만4천원.





“촉촉하면 커버력이 떨어지고,
처음 발랐을 때 느낌은 좋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크닝이 심하고, 커버는
완벽한데 얼굴이 답답하고...
완벽한 파운데이션을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설화수 퍼펙팅
파운데이션을 만난 뒤 이런
고민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최향진

#퍼펙트스킨
#스킨케어효과
#럭셔리베이스

설화수 퍼펙팅 파운데이션.
35ml, 7만원.

설화수 퍼펙팅 파운데이션

어느 순간부터 피부가 답답하고 건조해서 파운데이션을 못 바르겠다며 화장을 안 하시는 어머니, 아직도 자신에게 잘 맞는 파운데이션을 찾지 못한 파데 유목민 친구, 화장에 서툰 조카 등에게 완벽한 선물을 하고 싶다면 설화수에서 새로 나온 퍼펙팅 파운데이션에 주목할 것. 스킨케어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해 오랜 시간 바르고 있어도 피부가 편안할 뿐 아니라, 이름 그대로 완벽한 커버에 고급스러운 윤기를 더해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줄 것이다.



설화수 진설명작 크림

대한민국 사람 중 설화수 화장품을 선물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만큼 모든 여성이 좋아하는 최고의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감사의 달 5월에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면 망설이지 말고 설화수를 선택할 것. 설화수 중에서도 하이엔드 스킨케어 제품인 진설명작이라면 받는 사람에게 평생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 것이다.

“설화수 진설 라인을 선물했을 때, 받아 들고 기뻐하던 엄마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 진설 라인보다 더 진귀한 원료를 가득 담은 진설명작이 나왔으니, 올해 어버이날 엄마 선물은 고민 없이 이것으로 정했다.”

-프리랜스 에디터 안새롬

#럭셔리끝판왕
#블로장생원료
#무한한점음의에너지

설화수 진설명작 크림. 60ml, 80만원.

SET/STYLIST: YOO YEO JUNG

엄마와 딸

세상 누구보다 친밀한 사이인 엄마와 딸. 생활 습관과 라이프스타일은 물론, 세세한 취향과 데일리

뷰티 루틴에 이르기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딸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멘토인 엄마와

엄마에게 아름다움을 물려받은 딸을 만났다.

photographer SHIN SUN HYE

editor LEE SUNG JIN

예뻐지는 작은 습관, 강옥희+김윤지 모녀

드라마와 영화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딸 김윤지. 그리고 30대 딸을 뒀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젊음과 미모를 간직한 어머니 강옥희. 두 사람은 보는 것만으로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질 만큼 시원한 미소와 매사 즐겁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까지 꼭 닮았다. "엄마에게 배운 게 아주 많아요. 낙천적인 성격부터 강인한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까지 모두 영향을 받았거든요. 소소한 뷰티 케어 습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김윤지의 건강관리 비결 중 하나는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인데, 이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조언을 따르며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이다. 그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면 꼭 하는 독특한 마사지 비법 역시 어머니의 노하우를 배웠다. "오래전 엄마랑 친한 테라피스트가 꾸덕꾸덕한 재생 밤으로 마사지를 하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귀뜸해주셨대요. 이 말을 들은 엄마가 재생 밤에 비타민 E 오일을 섞어 마사지해봤는데, 다음 날 피부가 한결 예뻐 보이고 화장도 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엄마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면 꼭 이 마사지를 하세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어머니를 보고 자란 김윤지 역시 피부가 생기를 잃었다 싶으면 재생 밤에 비타민 E 오일을 섞어 마사지 하곤 한다. 그럼 피부가 한결 촉촉하고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김윤지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신이 빛나듯 완벽한 몸매인데, 이를 가능하게 해준 운동을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준 사람 역시 어머니다. "운자가 다섯 살 때부터 발레를 배웠는데, 곧잘 따라 하

더라고요. 그래서 일곱 살 되던 해에는 당시 입학 경쟁률이 치열했던 스포츠 유치원에 보내려고 남편과 함께 그 앞에서 밤새 줄을 서기도 했어요. 아이가 다양한 운동을 해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던지. 그때부터 운동에 흥미를 느낀 것 같아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라 아쿠아로빅이나 유산소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모녀는 요즘도 종종 피트니스 센터를 찾아 함께 운동한다. "엄마랑 같이 필드에 나가고 싶어요. 엄마가 골프를 좋아하시는데, 지난해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이라 한동안 같이 필드에 나간 적이 없거든요. 엄마가 얼른 건강해지셔서 같이 야외에 나가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김윤지가 어머니와 함께 하고 싶은 일 역시 운동이다.

촬영 중간중간 서로의 모습을 모니터링하며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모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듯한 두 사람에게 서로 처음 선물한 게 무엇인지 기억하느냐고 물어봤다. "고등학교 때 용돈을 모아 향수를 사드렸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선물 좋은 향기가 났거든요. 그래서 엄마 선물로 큰 고민 없이 향수를 선택했어요." "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고등학교에 다니던 윤지가 메이크업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백화점에 가서 10대들을 위해 나온 아이샤도와 립글로스를 사줬어요. 요즘엔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메이크업을 잘 하지 않는 편인데, 오히려 그때 더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함께 쌓은 추억을 회상하며 환하게 웃는 모녀에게서 건강한 에너지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강옥희(58세)
긍정적인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환한 미소가 매력적인
어머니.

김윤지(33세)
가수, 완벽한 몸매의
소유자라는 수식어에
연기자의 타이틀을
더해가고 있는 딸.





손끝까지 놓치지 않는 세심함,
김민휘+정재인 모녀

정재인 대표가 이끄는 민휘아트주얼리는 분야와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디자인의 주얼리를 선보인다. 브랜드명은 어머니 김민휘의 이름을 따 지었다. 하이엔드 주얼리와 전통 장신구를 만들어온 어머니의 노하우에 딸의 모던한 감각을 더해 완성한 독창적인 주얼리들은 드라마와 영화, 뮤직비디오 등에 등장하며 주목받고 있다.

촬영 현장에도 직접 디자인한 작품을 착용하고 온 모녀.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주얼리를 보다 보니, 수공예 작업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끈한 손이 눈에 띈다. "깨끗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손을 엄청 자주 씻어요. 소독제도 많이 쓰고요. 그러다 보니 손이 쉽게 거칠어져서 핸드크림을 꼭 바릅니다." 영양이 풍부한 핸드크림을 수시로 발라 손끝까지 촉촉하고 깔끔하게 관리하는 정재인 대표의 습관은 어머니를 보며 배운 것. 좋은 습관은 대를 이으며 더 진화해 딸은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갖춘 제품을 고르는 안목까지 갖췄다. 주얼리를 밝은 곳에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늘 조명을 켜 상태로 작업하는데, 조명에도 자외선이 들어 있다는 말을 들은 뒤부터는 자외선 차단도 잊지 않고 챙긴다. 이렇게 손끝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는 습관은 작은 부분도 잊지 않고 공을 들이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메

김민휘(60세)
벌써 20여년째
하이엔드 주얼리와 전통
장신구를 만들고 있는
아티스트.

정재인(34세)
어머니와 함께 고품격
수공예 주얼리 브랜드
민휘아트주얼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관리하는 것이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재인이한테 처음 사준 화장품도 립글로스였어요. 각질이 일어난 입술은 보기 싫으니까요."

어머니 김민휘가 신경 쓰는 부분은 또 있다. 피부에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그때그때 잘 회복시키는 것. 영화나 드라마의 빠듯한 촬영 스케줄에 맞추다 보면 밤샘 작업을 할 때도 많아 약건성 피부가 다소 민감해지기도 하는데, 이럴 때면 꼭 스파나 피부과를 찾아 피부를 꼭 쉬게 해준다. 피부 재생에 중요한 나이트 케어 역시 소홀히 하지 않는다. 충분히 클렌징한 뒤 피부에 잘 맞는 밤 전용 에센스를 꼼꼼히 바르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페이스 오일도 챙겨 바른다. 딸 정재인의 피부 관리 비법은 크림을 레이어링하는 것. 수분 크림과 영양이 풍부한 아이크림을 얼굴 전체에 덧바르는 방법이 피부에 잘 맞는 것 같다고 귀띔한다. 조금 피곤한 느낌이 들거나 시간적 여유가 생길 때면 혈자리를 누르거나 가볍게 압력을 가하며 마사지하듯 크림을 발라 지친 피부를 다독여준다.

"제 일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딸이 참 자랑스러워요. 주얼리 만드는 일도 열심히 하지만,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는 현명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이 참 많아요. 딸이 앞으로 행복하게 작업하며 지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주얼리를 만드신 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처음과 같은 열정을 갖고 작업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저도 엄마처럼 언제나 최선을 다할 거예요." 같은 길을 걷는 선후배로서 서로에게 덕담을 잊지 않는 모녀는 두 사람이 만드는 주얼리처럼 빛나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패션과 뷰티에 대한 남다른 열정,
이지선+이태희 모녀

미스코리아 출신 디자이너이자 리틀스텔라와 오조크(OZOC) 대표인 동시에 엄마이기도 한 이지선. 그의 딸 태희는 언제 어디서나 엄마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랑스러운 분신이다. 이지선이 아이 옷을 선보이는 브랜드를 론칭한 것도 딸 태희 덕분. "태희의 영어 이름이 스텔라예요. 태희에게 예쁜 옷을 사주고 싶은데, 마땅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각적인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대의 아동복을 만들어보자는 마음으로 브랜드를 론칭했어요. 그게 어느덧 30여 개의 매장을 갖춘 큰 브랜드로 성장했네요." 브랜드의 뮤즈로 리틀스텔라 룩 북 촬영에 모델로 참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일까. 새초롬해 보이던 태희는 촬영을 시작하자 오래 지나지 않아 미스코리아 엄마 못지않은 포스로 스태프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패셔너블한 모녀의 닮은 점은 또 있다. 두 사람 모두 뷰티에 관심이 많다는 점. 2007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인 미스코리아 진에 선발될 만큼 미모가

빼어난 이지선은 20대 시절 왕성한 호기심으로 좋은 화장품은 다 써보고 헤어스타일도 끊임없이 바꿨다. 효과가 좋다는 피부과 시술도 많이 받아본 것이 사실이다. 그 영향인지 30대 중반 이후 피부가 무척 예민해졌다. "피부가 워낙 건조한데, 과한 영양 성분이나 시술이 건조한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든 것 같아요. 트러블도 잘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피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꼭 필요한 제품만 쓰면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데 집중하는

거죠." 스킨케어 루틴이 이렇게 간략해진 데는 태희의 영향도 컸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시간이 넉넉지 않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필수적인 루틴만 챙기게 된 것. 스페셜 케어로는 시트 마스크 팩을 주로 하는데, 밀착력이 떨어지는 부직포 형태의 제품이 불편해 최근에는 하이드로겔 타입의 제품을 즐겨 쓴다. 얼굴에 잘 밀착해 태희와 장난치며 많이 움직여도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복잡한 스킨케어 단계를 간소화하고, 피부에 꼭 맞는 제품을 골라 쓴 이후 피부가 조금씩 자생력을 키워가는 기분이 든다고 한다. 엄마의 영향을 받아 태희 역시 뷰티에 관심이 많다. 립스틱은 물론 아이섀도우와 네일 에나멜까지 다 써보고 싶어 하는 딸이 귀여워 직접 발라주기도 한다는 이지선은 영광없는 딸 바보다.

이렇게 뷰티에 관심이 많은 엄마가 딸에게 물려주고 싶은 습관은 무엇일까? 그는 꼼꼼한 딥 클렌징을 꼽는다. "저 역시 매일 클렌징에 집중해요. 오일-폼-뉘아내는 토너의 세 단계로 클렌징을 하는데, 놓치고 지나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신경 써서 씻어내요. 그럼 피부가 더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런 습관을 태희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피부에 자극을 주는 미세먼지도 더욱 심해질 테니까요." 미스코리아 시절 엄마 사진을 보며 너무 예쁘다고, 엄마가 참 좋다고 수줍게 말하는 태희. 그런 딸에게 설새 없이 뽀뽀를 하며 애정을 숨기지 않는 이지선. 두 사람 주변에는 사랑스러운 핑크빛 기운이 가득했다.



“꼼꼼한 클렌징과 간단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스킨케어. 제가 딸 태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뷰티팁이에요.”



이지선(38세)
2007년 미스코리아 진,
패션 디자이너이자
리틀스텔라와 OZOC의
대표.

이태희(7세)
사진 찍기와 춤추고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애교쟁이.

철칙이 된 세안,
서선원+김다정 모녀

30여 년 경력의 베테랑 플로리스트 서선원과 패션 VMD로 일하다가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플라워 디스플레이 작업을 하는 데코레이터 김다정. 같이 살고, 함께 일하는 두 사람은 24시간 내내 붙어 다닐 만큼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이다. 새벽에 문을 여는 꽃 시장의 시간에 맞춰 다소 불규칙한 플로리스트의 삶을 살면서도 두 사람의 피부는 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름답다는 생각에 흔한 미용 시술조차 한 적 없고, 유난스레 관리하지도 않는다는 두 사람의 피부가 이토록 생기 있고 탐스러운 비결은 무엇일까?

“엄마나 저나 별다른 피부 관리 비법이 없어요. 비싼 화장품도 쓰지도 않고 마사지를 자주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남들과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세안에 신경 쓰는 정도예요. 사실 이게 특별한 일은 아니죠. 누구나 아침에 눈뜨면 하고 자기 전에도 하는 게 세안 이니까요. 다만 엄마는 그걸 철칙으로 삼고 하루도 빼놓지 않았어요. 체계도 늘 세안의 중요성을 강조 하셨고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김다정은 일을 마친 뒤 집에 돌아와 아이를 재우며 같이 잠드는 경우가 많은데, 잠든 그를 깨워 세안하게 하는 것은 늘 어머니의 몫이다. 몸이 피곤할 때는 조금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준 비법인 것 같다고 한다. “아이들과 함께 잠든 딸을 보면 그냥 두고 싶기도 하지만, 꼭 깨워서 클렌징을 하게 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요. 소중한 것을 잃기 전



에 알아서 관리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어머니의 잔소리에는 딸을 향한 애정이 듬뿍 묻어있다. 패션과 뷰티 업계에 종사하는 지인이 많은 김다정은 화장품도 종종 선물 받는데, 일을 하며 피부가 조금 예민해진 탓에 쓸 수 없는 것도 많다. 그런데 피부가 건강한 엄마는 어떤 화장품을 써도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아 부럽다고 한다. 세안 외에 또 다른 피부 관리 비법을 묻는 질문에는 숙면을 꼽았다. 특히 소위 ‘머리만 대면 자는 스타일’이라 스케줄에 여유가 생길 때마다 충분히 자며 휴식하는데, 이 습관이 피부 재생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귀띔한다. 두 사람이 함께 촬영하는 시간. 잡지 촬영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며 단시간에 촬영을 마쳤다. 두 사람이 이토록 카메라에 익숙한 건 매일 함께 작업하며 서로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때문이다. 김다정의 인스타그램에는 어머니가 찍어준 꽃과 딸의 모습이 가득하다. “일에 대한 엄마의 열정은 참 대단해요. 아무리 작은 작업이라도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마무리하시죠. 집에서 늘어져 있는 건 엄마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일도 잘하는 딸이 대견해요. 저와 함께 꽃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했지만, 꽃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아티스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삶과 일에서 서로에게 믿음직한 멘토이자 조력자가 되어주는 두 사람. 일에 대한 한없는 열정과 철저한 뷰티 케어가 두 사람을 한층 빛나게 하고 있었다.

서선원 (67세)
끝없는 열정으로, 벌써 3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프로 플로리스트.

김다정 (41세)
패션 VMD로 일하다 지금은 꽃을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작업을 하는 데코레이터.

원조 코덕과 피부 전문가,
정연선+이하은 모녀



“엄마는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까지 화장품에 저보다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란 덕분인지
늘 외모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는 게 제게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부에 관한 지식을 널리 알리고 있는 포레 피부과 대표원장 이하은. 그가 피부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어머니 정연선의 역할이 컸다. “워낙 꾸미는 걸 좋아했어요. 잡지나 TV를 열심히 봤는데, 특히 <향장>은 한자 이름으로 발간되던 시절부터 챙겨 읽었죠. 친정어머니가 피부에 관심이 많으셔서 아모레퍼시픽 카운슬러들이 종종 집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터뷰가 더 반갑네요.” 어린 시절부터 화장을 좋아했다는 ‘원조 코덕’ 정연선은 <향장>의 오래된 팬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비싸고 좋은 화장을 많이 써왔다는 정연선이 절대 잊지 않고 반드시 바르는 것이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에도 자외선이 노화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고 벌써 수십 년째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선크림을 바르고 있다고 한다. 온종일 집 안에 있는 날에도 챙겨 바를 정도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이하은과 여동생 역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습관이 됐다. 두 자매가 어린 시절부터 꾸미고 모양내기 좋아한 것도 멋쟁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때문이다. 집에서든 옷을 갖춰 입고 매일 메이크업을 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 법. 최근 불이 치지고 주름과 색소침착이 나타나기 시작한 어머니를 위해 딸 이하은은 틈날 때마다 자신의 병원으로 모셔 시술해드린다. “주기적으로 보톡스를 시술해 주름을 완화하고, 슈링크나 고주파 시술로 탄력을 더해요. 잡티가 도드라지면 레이저 토닝 시술을 하고요. 다행히 피부가 건강하셔서 새로운 기기를 도입할 때마다 가장 먼저 시술해드리죠.” 피부가 무던한 어머니와 달리 이하은의 피부는 민감성. 그래서 좋은 제품을 여러 가지 바르기보다는 보습 제품 위주로 미니멀하게 스킨케어를 한다. 피부에 맞는 제품을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오랜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제품을 꾸준히 바르고 있다고 한다. 피부과를 운영하다 보니 아무래도 화장을 선물 받을 때가 많은데, 본인의 피부에 맞지 않는 제품은 늘 어머니 차지다.

“외할머니에게 선물 받은 설화수 화장품을 쓰시던 엄마 모습이 기억나요. 집에서 천연 팩을 직접 만들어 쓰시던 모습도 생각나고요.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까지 화장품에 저보다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란 덕분인지 늘 외모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는 게 제게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좋은 습관을 물려주고, 평생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영감을 준 어머니 정연선. 그리고 어머니를 닮아 피부과 의사의 길을 걸으며 뷰티 노하우를 전파하는 딸 이하은. 행복한 사람의 얼굴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은 없다고 말하는 모녀는 함께 하는 동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보여주었다. **⑩**



정연선(64세)
친정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뷰티 유전자를 두 딸에게도 고스란히 물려준 어머니.

이하은(38세)
어머니를 닮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게 일상이 된 포레피부과 대표 원장.

HAIR: CHO SO-HEE·PARK KYU BIN, MAKEUP: BAE HYE-RANG·LEE AH-YOUNG, STYLING: LEE GYEONG-WON



언제나 아름답게

우리의 삶은 나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고민에 놓이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젊고 건강하며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고 싶은 세상의 모든 여성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연령대별 스킨케어 노하우를 준비했다.

photographer PARK JONG WON(제품)
editor KIM HEE JIN(CONTENT ME)

30s

AGING AGONY

연일 올려대는 긴급 재난 문자와 미세먼지 앱의 알람을 뒤로하고 분연히 일터로 나섰다 돌아오면 피부는 만신창이다. 외부 유해 환경으로 인해 울긋불긋해 지는가 하면 기후변화가 극심한 계절 탓에 여드름 같은 환절기성 트러블도 부쩍 늘었다. 밤늦도록 일한 다음 날이면 한층 깊어지는 팔자주름과 미간의 주름은 또 어더가. 이럴 땐 늘 쓰던 제품을 발라도 자국이 느껴지고 심한 경우 열감이 느껴지며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기도 한다.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 EX
오리지널 피부의 수분
보유력을 끌어올리는
진한 수분 앰플.
5ml×12병, 11만원.



아이오페 레티놀 포 링클
0.1% 눈에 띄는 주름을 빠르게
완화하는 고효량 레티놀 세럼.
30ml, 9만원.



SOLUTION

건강한 피부의 핵심은 유·수분 밸런스! 일반적으로 피부는 유분 20~30%, 수분 70~80%를 함유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보는데, 이 균형이 유지되는 피부는 표면의 피지막이 얇은 덮개처럼 각질층의 수분 증발을 막아 피부가 적정 수분 함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욱이 30대는 본격적인 노화의 길로 내달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이 시기의 스킨케어는 얼리 안티에이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각종 도시 유해 환경에 맞서 피부를 보호하는 안티 폴루션 기능까지 갖췄다면 안심할 만하다.

PHOTO: WWW.GETTYIMAGEBANK.COM

헤라 유스
액티베이팅 셀 세럼
날마다 쌓이는
도시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지키고 생기를
되찾아주는 데일리
안티에이징 세럼.
40ml, 9만5천원.



설화수 수분영양크림
강력한 수분과
풍부한 영양을
함께 전달해 피부
속이 땅기는 증상을
줄여주는 사계절용
크림. 50ml, 7만원.



프리메라 슈퍼
블랙씨드 콜드-드랍
세럼™ 피부의 항산화
기능을 5배로
끌어올려 초크콜라
징후를 케어하고
자생력을 강화하는
저자극 안티에이징
세럼. 50ml,
5만3천원.

프리메라 리페어 빈
시카 크림 건조해
손상되고 민감해진
피부를 다독여주는
피부 장벽 강화 크림.
40ml, 3만5천원.



40s

AGING AGONY

조금만 무리해도 피로감이 얼굴에 드러나고, 컨디션이 한번 바닥을 친 피부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 소싯적에는 화장하지 않은 얼굴이 더 예쁘다는 소리도 종종 들었는데, 이제 민낯으로는 가족에게조차 좋은 소리 듣기 힘들 지경이다. 생기는커녕 탁한 기운만이 감도는 피부 톤과 기미부터 검버섯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잡티, 실제보다 죽히 다섯 살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주름까지, 피부에서 오는 40대의 고민은 끝이 없다.

아모레퍼시픽 유스 레볼루션 래디언스 컨센트레이터
백모란과 비타민 C 유도체가 노화 징후를 케어하여 젊은 피부의 활력과 빛을 선사해주는 럭셔리 비타민 안티에이징 세럼. 30ml, 25만원.

헤라선 메이트 스틱 SPF50+/PA++++
피부 노화의 최대 적인 자외선에 맞서 피부를 보호하는 멀티케어 스틱. 20g, 3만5천원.

SOLUTION

피부 노화는 항산화와 관계가 깊다. 철이 녹슬 듯 피부도 산화하는데, 부식을 막아주는 '코팅제'처럼 피부의 산화 손상을 예방하는 항산화제를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C다. 비타민 C는 최고의 항산화제이자 미백제 겸 항염증제이며 콜라겐 합성과 에너지대사도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비타민 E, 포도나 식물의 씨앗에서 추출하는 레스베라트롤, 녹차, 커피 열매 등이 피부를 위한 항산화제 성분으로 많이 쓰인다.

헤라 로지-사틴 크림
피부 턴오버 과정을 촉진해 꽃잎처럼 부드럽고 섬세한 피부로 가꿔주는 결 케어 크림. 50ml, 9만8천원.

아이오페 에이스 비타민 C 25 순수 비타민 C를 25%나 함유해 안티에이징 효과가 뛰어난 고농축 비타민 앰플. 23g, 7만원.

설화수 윤조에센스 퍼펙팅 자음액티베이터™와 함께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석류 추출물을 더해 첫 단계부터 건강한 피부로 개선해주는 안티에이징 부스터. 90ml, 13만원/120ml, 16만원.

50s

AGING AGONY

한 해가 다르게 축축 처지는 얼굴. 둔탁해진 턱선은 타고난 얼굴형이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 탄력이 떨어진 만큼 회복도 더더 밤새 뒤척이다 생긴 베개 자국이 다음 날 오후가 되도록 가시지 않는 것은 물론, 잠시 외출할 때 쓴 마스크의 잔흔마저 콧잔등이며 두 볼에 선명하다. 마스크 위로 뺨뾰 드러난 눈가의 주름과 불룩한 아이백도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아이오페 레티놀 포링클 0.3% 고향량 레티놀 성분이 즉각적이고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선사하는 국소 부위용 세럼. 20ml, 13만원.

아모레퍼시픽 빈티지 싱글 엑스트랙트 에센스 100일간 자연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친 제주 돌송이 차발 녹차 추출물만으로 이루어진 안티에이징 에센스. 120ml, 17만원.

설화수 진설아이에센스 적송의 강한 생명력을 담은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아이 에센스. 전용 골든 아이 케어 마사지를 함께 제공한다. 20ml, 27만원.

SOLUTION

눈가에 있던 지방 주머니가 중력에 의해 안구에 눌러 점점 눈 밑으로 튀어나오고, 그 아래 볼은 오히려 푹 꺼지면서 늘어지는 일명 '심술 주머니'부터 이마의 굽은 주름과 목주름, 팔자주름까지 탄력이 절실하다. 수분 부족에 따른 건조와 탄력 저하가 심화되는 50대 피부에는 펌핑과 보습이 필수 덕목으로 꼽힌다. 콜라겐, 엘라스틴, 레티놀, 펩타이드 등의 성분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 피부 속부터 탄탄하게 채워주는 탄력 강화 제품을 바르고 꼼꼼하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피부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헤라 에이지 어웨이 바이탈라이징 크림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계속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도시 여성의 노화를 예방해주는 주름 개선 크림. 50ml, 11만원.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세럼
식물이 씨앗에서 싹을 틔울 때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를 담아 피부에 생기와 활력을 더해주는 세럼. 50ml, 3만5천원.

60s

AGING AGONY

결국 면역력이 문제다. 온몸의 정기가 빠져나간 듯 작은 시련에도 도통 기운을 차리지 못하는 건 피부 역시 마찬가지다. 마스크를 쓰고 외출한 날은 입가와 볼 주변이 푸석푸석하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공기의 질 때문에, 햇빛이 강한 날은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심하게 트러블을 일으킨다. 힘 없는 60대 피부에는 세상의 온갖 것이 자신을 위협하는 적일 뿐이다.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인텐시브 스킨 리뉴얼 앰플 제주 다원에서 자란 최고급 녹차 성분이 생기 어린 피부로 바꿔주는 집중 안티에이징 앰플 4세트, 54만원.



헤라 시그니아 크림 3백만 나르시스 식물세포 성분의 농축된 생명력을 그대로 담은 토털 안티에이징 크림. 60ml, 28만원.



설화수 진설명작크림 영지버섯과 액티브인삼셀™의 무한한 에너지가 잠든 피부를 깨워 생명력을 되찾아주는 프레스티지 크림. 60ml, 80만원.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워터 식물이 씨앗에서 싹을 틔울 때 나오는 무한한 생명력의 에너지가 맑고 촉촉한 피부로 개선해주는 저자극 스킨. 180ml, 3만원.



설화수 자음수 퍼펙팅 게질이나 피부 타입, 연령에 상관없이 두루 쓰기 좋은 보습감이 풍부한 젤 타입 스킨. 125ml, 5만7천원.



SOLUTION

몸의 기운이 빠지는 환절기에 먹는 보약 한 첩이 큰 힘이 되듯 스스로 견디는 힘을 잃은 피부에 필요한 건 잘 처방한 영양이다. 이럴 땐 마스크나 앰플 그리고 진귀한 성분으로 이루어진 크림만 한 게 없다. 매일 쓰는 토너 하나도 고기능성 제품으로 바꾸고, 영지버섯이나 인삼처럼 값비싼 성분을 듬뿍 담은 스페셜 케어 제품을 데일리 루틴에 추가해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한다. 최소 피부 재생 주기의 한 기간에 해당하는 4주 이상 지속한다면 제아무리 면역력 제로의 저질 피부에도 분명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길 것이다.

70s

AGING AGONY

노년의 피부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주름지고 처지는 건 물론이고 기미나 검버섯 같은 색소침착에 보기 싫은 쥐뿔까지 겹쳐서 두드러지는 중증 트러블뿐 아니라 온몸이 가렵고 퍼석거리는 증상이 연중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건강 챙기기도 벅찬데 젊을 때처럼 미백이나 리프팅이나 일일이 신경 쓸 여력도 없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거울 보는 일이 줄어들 뿐이다.

설화수 탄력영양크림 영양이 풍부한 자음영양단™과 맥문동 추출물이 보약처럼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키워 사계절 탄탄하고 윤기 있는 피부로 바꿔준다. 75ml, 11만원.



헤라 시그니아 앰플 4주 동안 사용하면 피부에 탁월한 생기와 탄력을 선사하는 토털 안티에이징 앰플. 10.2g×4개, 25만원.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 백삼에서 추출한 미백 성분이 어린이의 피부처럼 맑은 생기를 끌어올려주는 브라이트닝 에센스. 50ml, 21만원.



SOLUTION

문제가 다양한 만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멀티 아이템이 절실하다. 하나로 보습부터 탄력, 항산화까지 아무지게 해결할 수 있는 토털 안티에이징 제품을 곁에 두면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할 것이다. 나이 들수록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제품 흡수 속도가 더딘 만큼 고기능성 제품일수록 입자가 작고 가벼운 에센스나 앰플, 유액 타입을 골라 얇게 여러 겹 바르는 것이 좋다. 잠들기 전 쏠쏠한 질감이 느껴지는 크림을 두둑하게 발라 마스크처럼 사용하면 밤사이 일어나는 피부 재생 과정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세럼 응축된 녹차의 에너지가 피부를 전방위로 케어해 매끄럽고 화사하게 바꿔주는 안티에이징 세럼. 30ml, 57만원.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크림 고귀한 앰솔루티™의 강력한 노화인자 케어로 피부 밀도를 높여주는 궁극의 안티에이징 크림. 50ml, 50만원.





완벽한 세미 매트 피부를 위한 듀오,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 파운데이션 브러쉬 02

베스트셀러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출시 후 지금까지 최고의 파운데이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블랙 파운데이션과 그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전용 브러쉬를 소개한다.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SPF15/PA+ 24시간
동안 시크한 세미 매트
베이스 메이크업을
유지해주는 파운데이션.
35ml, 6만원.

헤라 파운데이션 브러쉬
02 MATTE 섬세한 모공
커버로 결점없는 피부
표현을 도와주는 매트
파운데이션 브러쉬.
4만원.

끈적임 없이 산뜻하다 *

96.7%

지워짐 없이 하루 종일 유지

90.3%

보송함 지속

93.5%

* 성인 여성 만 20-29세
대상 시험결과 - 총 31명,
2018.12.10 ~ 2018.12.13 /
피앤케이피부임상연구소 (주)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 파운데이션 브러쉬 02

①

24시간 지속되는 밀착력

소프트 매트 파우더와 보습 성분이 이중으로 작용해 피부 속이 건조한 증상 없이 부드러우면서도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블랙 파운데이션의 진가는 피부에 완벽히 밀착되는 '겔뽀속촉' 베이스가 무려 24시간이나 지워지는 일 없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②

아침 화장 그대로 다크닝 없는 커버핏

지속력이 제아무리 좋다고 해도 처음 화장한 때의 화사한 기운이 사라지면 무의미하다. 블랙 파운데이션은 마그네틱 파우더 기술을 적용해 처음 웨이드 그대로 다크닝 없이 깨끗한 화장이 하루 종일 지속된다.

③

모공까지 완벽히 커버해주는 블랙 파운데이션 전용 브러쉬

최근 새로 출시된 헤라 파운데이션 브러쉬 02는 초미세모가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을 뿐 아니라 부드럽게 커팅되어 브러쉬 자국 없이 파운데이션을 피부에 완벽하게 밀착시켜준다. 게다가 스웨이 형태라 눈가나 콧방울 등 터치하기 힘든 부분까지 섬세하게 바를 수 있다.

“소량으로 얼굴 전체를 완벽히 커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장을 수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속력이 뛰어나다. 재구매율이 높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마리끌레르> 뷰티 에디터 김보나

“메이크업 기술이 부족할수록 좋은 파운데이션을 선택해야 한다. 속속 퍼 바르기만 해도 완벽한 피부로 완성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처럼 말이다.”

-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영

“10년 넘게 다른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왔는데, 블랙 파운데이션을 처음 테스트해보고 바로 이 제품으로 바꿨다. 드디어 인생 파운데이션을 만났다.”

- 스타일리스트 박미경

BOTANICAL HYDRATING FLUID
FLUIDE BOTANIQUE HYDRATANT

AMOREPACIFIC

아모레퍼시픽
보태니컬 수딩 토닝 & 하이드레이팅 플루이드

1

왕대나무 수액

미네랄, 아미노산 등의 풍부한 영양 성분을 가득 머금고 있는 왕대나무 수액은 인체의 수분과 닮아 피부가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왕대나무 수액의 보습 영양 성분이 수분을 가득 채워주고 미세먼지로 인한 자극을 완화해 준다.

2

스킨 컴포팅을 위한 텍스처의 비밀

판테놀 고향량을 안정화한 이슬처럼 응축된 토너는 피부 장벽을 강화해 주고,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보습감을 선사한다. 플루이드는 센텔라(시카) 성분을 함유한 농축된 제형으로 실크처럼 피부를 감싸 보호하고, 건강하게 우러나는 윤기를 선사한다.

3

피부를 탄탄하게 지켜주는 보태니컬 리쥬얼

보태니컬 토너로 피부를 부드럽게 닦아낸 후, 손에 적당량을 덜어 2~3번 더 농밀하게 발라준다. 토너 이후, 플루이드를 얼굴에 충분히 취한 후, 가벼운 마사지와 함께 흡수시켜 주면 단 두번의 리쥬얼 만으로도 물라보게 다시 건강해진 피부를 마주하게 된다.

공동-강력한 수분 보습감을 느낄 수 있다

94.3%

토너-피부가 매끄럽게 느껴지며,
피부 속까지 흡수된 느낌이다

94.3%

플루이드-피부결이 매끄럽고 촉촉해진다

91.4%

럭셔리 스킨케어 고객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일간 사용 후 만족도 평가 결과

피부를 편안하게 지켜주는 아모레퍼시픽 보태니컬 토너 & 플루이드

최근 외부 유해환경 및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부쩍 예민해진 피부를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켜줄 지원군을 소개한다. 자연의 왕대나무 수액을 가득 담아낸 아모레퍼시픽 보태니컬 라인이 그 주인공이다.

“수분 공급은 기본이고 자극 받은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준다. 요즘같이 예민해진 시기, 내 피부의 구원자가 아닐 수 없다.”

-<마리끌레르> 뷰티 디렉터 윤취진

“부드럽고 촉촉한 텍스처가 예민한 피부에 편안한 휴식을 줄 뿐 아니라 보태니컬 라인만의 환상적인 향이 마음까지 안정시켜준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김희진

“단 두 가지 제품만으로 피부가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제품. 피부에 휴식을 주고 싶을 때는 이 두 제품만 바른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성진

아모레퍼시픽 보태니컬 하이드레이팅 플루이드
유해 환경에 맞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순한 고영양 왕대나무 수액 플루이드. 실크처럼 유연하게 발리며 감싸 보호하는 텍스처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영양과 윤기를 선사한다.
200ml, 9만원.
160ml, 8만원.

아모레퍼시픽 보태니컬 수딩 토너 왕대나무 수액이 피부의 수분길을 열어 편안하게 진정, 정돈해 주는 고수분 토너. 앰플처럼 농밀하게 발리며 지친 피부에 깊고 풍성한 수분보습감을 선사한다.
200ml, 9만원.

BOTANICAL SOOTHING TONER
TONIQUE BOTANIQUE APAISANT

5세대 자음엑티베이터™로 더욱 강력해진 설화수 윤조에센스 퍼펙팅

국민 화장품 설화수 윤조에센스가 더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방문판매로만 만날 수 있는 윤조에센스 퍼펙팅에는 여기에 특별한 성분을 더했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퍼펙팅

①

잠재된 피부 능력을 깨우는 자음엑티베이터™

2만여 가지 허브 중 3912가지 조합과 1041개 원료에 대한 최첨단 데이터마이닝 기술, 그리고 바이오 기술인 유스 마스터 테크놀로지로서 탄생한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최적의 황금 비율로 이뤄진 5세대 자음엑티베이터™. 이전 설화수 윤조에센스보다 더 강력한 효능을 보장한다.

②

피부 하이테크 바이오 기술 유스 마스터 테크놀로지

자음엑티베이터™의 핵심 기술은 유스 마스터 테크놀로지다. 피부 자생을 지원하는 핵심 인자인 스킨마스터팩터에 최신 트렌드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결과가 더해진 최첨단 바이오 기술로 피부의 자생력과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③

오직 윤조에센스 퍼펙팅만을 위한 석류 처방

방문판매 고객만을 위한 윤조에센스 퍼펙팅은 업그레이드된 윤조에센스의 성분 외에 특별한 석류 처방을 더했다. 석류 추출물이 보습과 항산화 효과를 증진해 피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준다.

피부 건강 지수*

146% 개선

피부 컨디션 개선 경험**
(다음날 아침)**

97%

건강한 피부 기대**
(장기사용시)

97%

*인체 적용 시험 결과 표준 점수:
개선 전 피부 100 기준
시험 대상: 35~59세, 32명
시험 기간: 2019년 8월
26일~11월 29일
시험 기관:
피앤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주)

**한국, 중국, 싱가포르, 미주
지역 30~40대 여성 539명을
대상으로 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시험 기간: 2019년 9~11월
(총 4주간 HUT)
시험 기관: REMOTION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단번에
불식시킨 걸작. 한 번만
발라도 다음 날 아침 피부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다.”

-뷰티 엑스퍼트 김희진

“똑같은 스킨케어 제품도
윤조에센스를 바르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효과가
확연히 다르다.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프린세스 에디터 안새봄

“이전 버전에 비해 더
산뜻하고 촉촉한데, 바른 후
영양감이나 효과는 대단하다.
성공적인 업그레이드에
박수를 보낸다.”

-<마리끌레르> 뷰티 에디터 김상은



설화수 윤조에센스

퍼펙팅 더욱 강력해진
자음엑티베이터™가
피부 능력을 끌어올려
매일 더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필수
안티에이징 부스터.
90ml, 13만원/
120ml, 16만원.

2020년형 자.차

현재 자외선 차단제는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을 넘나들며 단순히 자외선 차단제로만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기능을 갖춘 기능으로 무장하고 진화한 2020년형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를 방어하라.

것이 트렌드다. 자외선 차단은 물론 안티폴루션, 피부 진정과 메이크업 베이스까지 다양한

for 연약한 피부로 인해 순한 자외선 차단제를 찾는다면

프리메라 스킨 릴리프 선밀크 워드 리프세이프 SPF 50+/PA++++, 50ml, 3만5천원.

일교차가 큰 봄철, 트러블 등 예민한 피부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이럴 때는 빛을 산란시켜 자외선을 튕겨내고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무기 자차를 추천한다. 프리메라가 새롭게 선보이는 무기 자차인 스킨 릴리프 선밀크 워드 리프세이프는 산호초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특정 자외선 차단 성분 대신 논나노 무기 자외선 차단 성분인 징크옥사이드 성분을 사용했다. 더불어 논나노 입자인 징크옥사이드 성분은 모공에 끼거나 허옇게 들뜨는 현상이 적다.



for 안티에이징과 자외선 차단 효과를 동시에 보고 싶다면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데이 디펜스 SPF50+/PA++++, 30ml, 17만원.

이것은 안티에이징 세럼인가 선크림인가. 아모레퍼시픽의 베스트셀러 타임 레스폰스 라인에 모두 함유된 아모레퍼시픽의 독자 효능 성분 앵솔루티™와 강력한 자외선 차단력으로 UV로 인해 무너지는 코어 콜라겐을 보호하여 한치의 흔들림 없이 탄탄한 피부를 선사한다. 매끄럽고 산뜻하게 피부에 흡수되어 피부 탄력과 밀도를 유지해주고, 극차광 녹차 성분이 초미세먼지로부터의 자극을 보호해 탄탄한 피부장벽을 완성해준다. 스킨케어 단계를 스마트하게 줄이면서 피부는 철저히 보호하길 원한다면 이 제품이 독보적이다.



editor AHN SAE ROM

for 미세먼지와 각종 공해로부터 피부를 지키고 싶다면

헤라 선 메이트 프로텍터 SPF50+ PA++++, 50ml, 3만8천원.

우리가 평소 피부로 느끼는 빛의 양은 얼마나 될까? 대부분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이나 컴퓨터 모니터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유해한 빛이다. 헤라의 선메이트 프로텍트는 피부 진피층에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손상시키는 자외선 차단 기술과 초미세먼지, 도시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C.U.T. 시스템을 갖추고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는 물론 피부 건강 증진까지 기대할 수 있는 안티폴루션 자차로 거듭났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항산화 성분과 워터하이드라시온 추출물이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른 듯 피부에 고급스럽고 촉촉한 윤광을 선사한다.



for 메이크업 베이스와 선크림을 한 번에, 올인원 아이템을 찾는다면

설화수 상백크림 SPF50+/PA++++, 2호 밀키톤업, 30ml, 6만원.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는 요즘, 묻어나지 않는 보습한 제형에 피부 톤 업 기능까지 갖춘 제품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파운데이션의 밀착력을 높여주거나 피부 톤 보정에 효과적인 메이크업 베이스에 강력한 선크림 기능이 있는 올인원 아이템이면 더 반가울 터. 설화수의 베스트셀러 자외선 차단제 상백크림이 자외선과 초미세먼지,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주는 3중 안티폴루션 방어막을 갖추고 돌아왔다. 눈이 시리는 등 자극 없이 순한건 물론, 가벼운 밀크 제형으로 끈적이지 않으며 빠르게 화사한 톤 업 효과를 볼 수 있다. 바른자마자 피부가 시원해지는 쿨링 효과도 매력적이다.



#구말파리
#스수와우자메
#봄향수



생생한 제품 평가

구말 파리의 스수와 우자메를 사용해본 품평단 10인의 솔직한 후기.

@yezi_mong

싱그러운 봄 느낌 가득한
장미 향을 원한다면
구말 파리의 스수와
우자메가 딱! 가볍게
뿌리고 훌쩍 봄나들이
떠나고 싶어요.



@albam_song

전 잠옷과 이불에 향수를
뿌려요. 씻고 나와서
향기 나는 잠옷을 입으면
힐링 그 자체! 이불에도
톡톡 뿌려주면 아로마
마사지를 받는 것 같아요.



@hyeng_ii

'오늘 밤이 아니면
영원히 없을'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우아한 장미
향이 부드럽게 남아요.
친구에게 선물하기도 딱
좋은 것 같아요.



@baby_suelbi

#향수스타그램. 오늘은
은은한 향에 끌려서 손이
간 구말 파리의 스수와
우자메 향수. 레이스
오프숄더 원피스에
우아한 장미 향을
입히니까 더 좋네요.



@ri_ta__

관능적이고 신비로운
로즈 향이 압권이에요.
구말 파리 스수와 우
자메 향수로 로맨틱한
주말을 준비해보는 건
어때요?



@liliby__

봄맞이로 장미 향 향수를
장만했어요! #구말파리
#스수와우자메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장미 향이 부담스럽지
않고 은은해 좋아요.

구말 파리
스수와우자메 오드 퍼퓸.
30ml, 11만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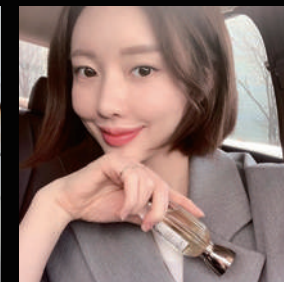
@0720_b

요즘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서 좋은
향이 나면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구말파리
#스수와우자메도
누군가가 돌아보게
만드는 매력적인 로즈
향인 것 같아요.



@petit_point

Ce Soir Ou Jamais.
'오늘 밤이 아니면
영원히 없을'이라는
뜻의 향수. 오늘 밤 친한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할 건데, 갈 때 찹찹
뿌리고 나가려고요.
흔하지 않은 세련된 로즈
향을 가진 #구말파리
#스수와우자메 진짜
좋아요.



@rammi.k

오늘처럼 싱그러운 날씨에
참 잘 어울리는 구말 파리
스수와우자메 향수. 아님
구말이 인생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향수로 꼽을
향수이기도 하고, 은근하게
퐁기는 매력적인 장미
향이 흔하지 않아 좋아요.
성숙하고 깊이 있는 향을
좋아하는 분들께 스수와
우자메를 강력 추천합니다.



@minsunmaro

봄 느낌 가득한
#향수 #구말파리
#스수와우자메
아름다운 꽃과 함께 있는
모습이 무척 예쁘죠?
향도 너무 좋네요.
부드러운 장미 향이 나오.

photographer PARK JONG WON
editor AHN SAE ROM

온갖 시술에도 끄떡없던 두피와 모발이 애를 먹이기 시작했다면 당장 헤어 안티에이징에 돌입해야 한다. 살이 약간 붙은 것 같아 고작 몇 기 굵았는데 머리숱이 확연히 줄고, 에센스를 하루만 안 발라도 머릿결이 부스스한 데다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으면 두피에 뿔루지가 돌는 상황 역시 마찬가지. 단순히 샴푸를 바꾼다고 나아질 일이 아니다. 체계적인 안티에이징 케어가 시급하다.

두피는 모발에 둘러싸여 있어 노화 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얼굴에 비해 노화 속도가 6배가량 빠르다고 알려져 있다. 거기에 더해 나날이 정도를 더해가는 스트레스와 미세먼지, 자외선은 두피의 시계를 더욱 빨리 돌리는 요소. 정수리 피부가 노화로 늙어지면 이마와 눈가의 주름까지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얼굴을 젊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두피 케어는 필수다. 두피와 모발을 늙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파마와 염색 등 화학적 시술. 모발의 단백질질을 변형시키고 큐티클을 손상시켜 머리카락이 푸석하고 심하면 끊어지거나 갈라지게 한다. 슬프게도 탈모와 흰머리 등 일시적인 모발의 노화 징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으므로 매일 하는 스킨케어처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머리 끝부터 시작하는 안티에이징

최고급 스킨케어 제품으로 얼굴을

팽팽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안티에이징을

완성하려면 정수리부터 신경 써야 한다. 윤기 흐르는 모발과 건강한

두피를 지키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헤어 안티에이징 습관.

photographer AHN JIN HO

editor LEE SUNG JIN

모발과 두피 노화 체크리스트

- 머리를 자주 감아도 각질과 비듬이 생긴다.
- 두피 트러블이 잦다.
- 두피를 만지면 딱딱하거나 아프다.
- 모발 두세 가닥을 잡아당기면 쉽게 빠진다.
- 머리를 금방 감았는데도 탄력이 없다.
- 모발이 가늘어지고 하루에 1백 올 이상 빠지는 기본이다.
- 정전기가 심하다.
- 정수리와 가르마 주변이 쉼하다.
- 파마가 금방 풀린다.
- 모근 주변에 기름이 많이 낀다.
-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었다.



정확한 진단은 필수

두피와 모발을 관리하려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 얼굴이 건성이라 건성용 샴푸를 쓰는데 정작 두피는 지루성인 경우도 있고, 건조해 생기는 뿔루지를 없애겠다고 지성용 샴푸를 쓰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피와 모발 타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찾아가 진단한 뒤 알맞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두피는 늘 깨끗하게

헤어 케어는 깨끗한 두피에서 출발한다. 노폐물과 피지가 먼지와 엉겨 붙은 덩어리가 산화하면 단단하게 굳어 샴푸로는 제거할 수 없는 두피 치석이 되므로 두피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두피 치석을 없애고 모공을 깨끗하게 세정하면 피부 호흡이 원활해지고 미세 혈액순환이 촉진돼 두피가 건강해진다. 두피가 깨끗해야 헤어 케어 제품의 유효 성분을 잘 흡수하므로 일석이조인 셈.

제대로 샴푸할 것

아무리 좋은 샴푸라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소용없다. 30~38℃의 미온수에 1분가량 두피를 적셔 모공 사이사이의 노폐물과 묵은 각질이 적당히 불은 후에 샴푸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뜨거운 물은 두피를 딱딱하게 만들고 모공과 혈관을 확장해 탈모를 가속화하므로 피할 것. 손바닥에 샴푸를 덜어 거품을 낸 뒤 두피에서

머리카락 끝으로 거품을 문혀가며 씻어내는 것이 좋다. 샴푸 후에는 린스를 두피에 닿지 않게 모발 끝 위주로 발라 수분과 영양분을 가둘 것.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감으면 머리 쪽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탈모를 유발하는 활성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빗질은 선택이 아닌 필수

빗질만 잘해도 모발이 달라진다. 실제로 빗질에 따른 두피 마사지가 머리카락을 두껍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관건은 브러쉬 선택. 정전기를 일으키는 나일론 브러쉬는 모근 조직을 벌어지게 해 두피와 모발 건강을 해치므로 피해야 하고, 모발과 구조가 유사한 천연 모뎀이 영양분을 모발 끝까지 고르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어 바람직하다. 도끼빗은

영긴 머리카락을 정돈해주고, 폭신평신향 패들 브러쉬는 두피 마사지에 적합하다. 좋은 빗을 골라 적당한 압력을 가하며 수시로 빗을 것.

두피 마사지 습관을 들이자

두피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해 노화를 막아준다. 아무 도구 없이 손가락으로 쉽게 할 수 있으므로 기억해두자. 손가락 끝에 힘을 실어 이마에서 정수리까지 천천히 누른 뒤 관자놀이 대고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 누른다. 이어서 두피를 살짝 잡았다 놓는 느낌으로 튕겨준 뒤 고루 두드리면 끝. 손톱으로 마사지하면 두피에 상처가 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상황에 맞는 제품을 골라 쓰자

두피와 모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만큼, 전문

케어 제품도 많이 늘어났다. 스킨케어 못지않게 선택의 폭이 넓으므로 여러 제품을 구비해두고 상황에 맞게 골라 쓰는 것도 좋은 방법. 파마나 염색을 한 경우에는 모발이 알칼리성으로 바뀌어 쉽게 끊어지는 등 약해질 수 있으므로 약산성 샴푸나 트리트먼트를 쓸 것. 모발이 심하게 건조할 때는 헤어 오일을 바르고 스팀 타월로 10~15분 감쌌다가 샴푸를 하면 한결 촉촉해진다. 모발이 급격히 힘을 잃었다면 앰플 형태의 영양제가 효과적이다.

흰머리는 절대 뽑지 말 것

흰머리를 무턱대고 뽑으면 모발의 성장 주기가 단축된다. 모공 하나에서 자라는 모발 개수는 25~35개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다 뽑고 나면 머리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흰머리가 늘었다면 뽑지 말고 자르거나 염색하자. 모발을 풍성해 보이게 하고 윤기를 더해주는 염모제도 많아 잘 고르면 모발 손상 걱정 없이 염색할 수 있다. **1b**

TIP

려 명품 생발효 인삼 샴푸 발효 인삼 성분이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되돌려주는 영양 크림 샴푸. 400ml, 3만3천원.



려 헤어 오일 세럼 인삼씨 오일과 7가지 씨앗 추출물이 모발의 볼륨감과 윤기를 살려주는 세럼 제형의 가벼운 오일. 100ml, 2만5천원.



려 바이오진생 진액 두피와 모근에 좋은 8가지 한약재를 함유해 탈모 증상을 완화해주는 집중 케어 프로그램. 20ml×8병, 7만5천원.



장미로운 나날들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의 순간을 향으로 떠올릴 수 있다면?

구달파리의 5가지의 장미 향으로

특별한 5월의 봄 날을 기억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이 사랑받은 꽃 장미는 오래전부터 향의 원료로 각광받았다. 페르시아인들이 장미를 증류하는 기술을 완성했고 로마 시대에는 장미 향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로즈 워터 분수를 만들고 먹는 음식에도 로즈 에센스를 뿌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니까. 현재 장미는 무려 1만7천 이상의 종으로 분류되고 그 향에도 모두 미묘한 차이를 갖고 있다. 여기에 섀들우드, 네롤리, 패츨리 등 다양한 원료와 만나게 되면 장미는 무궁무진하게 변화할 수 있는 변화무쌍한 원료. 때문에 권위있는 조향사들조차 오히려 장미를 콘셉트로 향을 창조하거나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장미 향을 담은 향수가 끊임없이 출시되고 우리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장미가 갖고 있는 로맨틱한 의미 때문이다. 셀리아 리틀턴이 쓴 <지상의 향수, 천상의 향기>에서 저자는 "18세기 초 터키의 <꽃의 밀어>라는 책에서도 장미는 가장 많은 꽃의 언어를 갖고 있다고 말해요. 욕망이나 사랑의 감정부터 관심과 애정, 순결 등 모든 감정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꽃이죠." 라고 말한다.

향 뿐만이 아닌 그 향이 지니고 있는 감정과 스토리텔링에 집중하는 구달 파리에 유독 장미에 관한 향수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가장 화려하게 꽃 피우는 장미를 담은 구달 파리의 다섯 가지 향수는 친근하면서도 흐치 않은, 서로 다른 독특한 향과 이야기를 품고 있다. 달콤한 향으로 베스트 셀러 자리를 놓치지 않는 뷔피뜨 쉐리와 정원에 만발한 장미의 향이 떠오르는 로즈 품퐁, 동서양의 귀한 장미 에센스로 만들어진 로즈 압솔뤼, 이슬을 머금은 듯 상쾌한 야생 장미의 향을 담은 로즈 스피랑디드, 부드러운면서도 고혹적인 터키 로즈향을 지닌 스수와 우자메가 바로 그것.

장미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낙 구달이 만든 5가지 장미 향수로 5월, 가족과의 단란한 한 때, 연인과 함께 로맨틱한 기억, 나 홀로 가장 좋아하는 책을 펼쳐 보던 순간까지 다채로운 일상의 추억을 장미롭게 간직해보자.



photographer PARK JONG WON
editor AHN SAE ROM

4 구달파리 로즈 압솔뤼 EDP 100ml 28만2천원.
장미를 사랑한 아낙 구달이 탄생시킨 완벽하게 우아한 장미 향수. 샌티폴리아 로즈, 터키 로즈, 불가리아 로즈, 다마스쿠스 로즈, 이집트 로즈, 그리고 모로코 로즈 등, 동서양의 가장 고귀한 로즈 에센스 67가지만을 골라 완벽하게 우아한 장미 향을 자랑한다.

5 구달파리 로즈 품퐁 EDT 100ml 19만8천원.
천국의 향으로 불리는 매혹적인 불가리아 로즈와 부드럽고 달콤한 타이프 로즈가 조화를 이뤄 신선하고 사랑스러운 장미 향을 자랑하는 향수. 여기에 블랙커런트의 상큼한 터치를 더해 청량하고 짜릿한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준다. 가장 사랑스러운 장미향을 고르라고 한다면 로즈 품퐁이 그 답이 될 것이다.

1 구달파리 로즈 스피랑디드 EDT 100ml 19만8천원
프로방스의 아침 정원에서 지금 막 찍은 장미에는 뿌리의 흙내음과 가시돋친 줄기의 푸른 향, 그리고 아슬 아슬 꽃잎의 신선한 향기로 가득하다. 로즈 스피랑디드는 이렇게 아침 정원에서 갓 찍은 생장미의 신선한 향을 가득 담은 장미 향의 향수. 자연이 주는 싱그러움 축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 향수는 달콤한 잔향이 편안하게 지속되는 것이 특징.

2 구달파리 뷔피뜨 쉐리 EDP 100ml 25만5천원.
뷔피뜨 쉐리는 'Little Darling'이라는 뜻으로 아낙 구달이 그녀의 딸 까밀 구달에게 스무살이 될 해를 기념하며 사랑을 담아 선물한 일화로도 유명한 향수다. 포근한 머스크 로즈에 달콤한 서양배가 섞인 향으로 화려한 피오니아 달콤한 복숭아처럼 달콤하고 상큼한 동시에 당돌하고 또 번덕스러운, 그 이름 그대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향이다.

3 구달파리 스수와 우자메 EDP 100ml 25만5천원.
'우연히 발견한 성직자의 정원에 장미 한 송이가 유혹적인 자태를 뽐내며 피어있다.' 아낙 구달은 미스테리하면서도 세수열한 상상 속의 장미 향을 현실화하기 위해 무려 15년에 걸쳐 160가지 이상의 비밀스러운 에센스를 조합하여 섬세하고 압도적인 향을 창조해냈다. 'Tonight or Never'라는 뜻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운 향을 자랑하는 향수.

LOCATION: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로빈루프



두려움을 이기는 여성의 꽃, 장미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세계 여성의 날구호다. 장미는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 성년의 날에도

여성들은 장미와 향수를 선물 받는다. 진짜 성인 여성이 된다는 의미를 생각해본다.

writer JUNG HYUN JOO

구말 파리의 창립자 아닉 구말은 장미를 지극히 사랑했다. 완벽한 장미향수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향수 하나를 개발하는데 15년이나 열정을 쏟아부어도 했고, 고급스러운 향을 내기 위해 동서양의 고귀한 장미들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아침 이슬에 흠뻑 젖은 장미 정원의 신비함,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은 야생장미의 강인함까지 구말 파리의 대표 향수들에는 다채로운 장미의 면면이 담겨 있다. 5월, 성년의 날이 되면 세상의 많은 스무살이 장미와 향수를 선물 받는다. 어른이 된다는 것과 장미, 과연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오래 전 이스라엘에 빛나는 여성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자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흠뻑 사랑 받았다. 행엘이라는 남자가 자이라를 흠모하여 거듭 구애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정합니다.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당당히 말하는 자이라에게 행엘은 분노했다.

머지않은 날 마을에 역병이 돌았다. 어떤 약도 듣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꾸 죽어나갔다. 거절 당해 자존심이 상했던 행엘이 비열한 방식으로 복수를 시도했다. 자이라가 마녀라고 나쁜 소문을 냈다. 사람들이 병에 걸린 것도 마을에 마녀가 있기 때문이라 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행엘을 믿지 않았다. 자이라는 좋은 사람이었다. 다만 전염병이 계속되는 것이 문제였다. 지쳐버린 사람들은 누구에게라도 책임을 묻고 싶었다. 행엘은 계속해서 자이라가 죽어야 전염병이 멈출 거라 외쳤다. 사람들은 흔들렸고 결국 마녀사냥이 결정됐다. 내가 죽어서 전염병이 멈춘다면 그 역시 좋은 일이라고 자이라는 생각했으므로 화형대에서도 평온할 수 있었다. 장작을 쌓고 불을 붙였지만 자이라에게는 불이 붙지 않았다. 불길은 이내 잦아 들었고 장작더미에 푸른 싹이 오르더니 꽃봉우리까지 맺혔다. 자이라를 둘러싸고 온통 장미였다. 사람들은 장미가 결백의 증거라 믿었다. 자이라는 자유를 찾았고, 나쁜 행엘은 쫓겨났다. 사람들은 화형대에 핀 희고 빨간 장미를 자이라의 꽃이라 불렀다.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 리트커스 광장. 여성 노동자 1만 4천명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다가 화재로 숨진 여성 동료들 기리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외친 구호는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We want bread, but roses, too)'였다. 빵은 생존권, 장미는 참정권을 뜻한다. 당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월등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 또한 갖지 못했다. 선거권도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20년부터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온 사람들이 있다. 글 쓰고 그림 그리던 나혜석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유난히 페미니즘 관련 서적이 많이 나왔다. 많은 서점에 여성학 코너가 확장되거나 신설되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페미니즘 특설 코너에 여성은 물론 남성들이 오래 머물렀다. 저역 무렵 한 대학생 커플이 케이크와 장미를 들고 들어왔다.

“빵과 장미네요.”

“남자친구가 선물해줬어요. 페미니즘 책 좀 추천해주세요. 남자친구에게 줄 거예요.”

둘은 마주보며 웃었다. 마침 서점에 우리 뿐이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스물 세 살이던 여학생은 여성학에 대해 해박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저도 흥미가 있고요, 어머니가 이쪽에 관심이 많으세요. 만날 토론해요.”

“멋진 어머니다. 남학생은 어때요? 서점에 있다 보니 페미니즘 코너 앞에서 화내는 남성분들도 많던데. 남자친구랑도 자주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해요?”

남학생이 수줍게 대답했다.

“논란 마주치면 얘기해요. 사실 처음엔 어려웠는데 지금은 저도 관심 많아요.”

두 사람은 책을 한 권씩 골라 서로에게 선물했다. 빵과 장미에 책을 보태야 여성의 날 선물이 완성된다고 했다. 신여성 관련 책이 주목 받던 시기였다. 나혜석의 책을 권했다.

〈조선여성 첫 세계일주기〉. 90년도 더 전에 한 여성이 부산에서 출발하여 파리까지 가서 달았다. 유럽 곳곳을 여행하고 미국까지 갔다. 20개월에

걸쳐 지구를 한 바퀴 돌며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글로 적었지만 21세기 여성들은 나혜석의 여행기를 2년 전에야 책으로 만날 수 있었다. 세계일주기가 나올 무렵 <나혜석, 글쓰는 여자의 탄생>이라는 또다른 책이 나왔다. 최초의 근대 여성 문학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경희도 사람이다. 그다음에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문장이 소설이 발표되던 1918년에는 전복적으로 다가왔던 모양이다. 훌륭한 그림을 남겼고 부지런히 글도 썼지만 나혜석은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미움을 받았다. 기폭제가 된 것은 기성의 결혼제도에 대해 질문을 던진 <이혼 고백장>이었다. 이혼 이후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그림과 글을 놓지 않았지만 결국 무연고 행려병자로 생을 마감한다. 단지 '여성도 사람이고, 여성에게도 이혼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찾아온 불행이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70년이 되는 2018년이 되어서야 우리는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신여성 도찰하다>를 통해 나혜석의 그림을 주목했다. 70년이 지나서야 잊혀졌던 그녀의 글들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쓰고 말하고 소리 내는 여성들에 대한 마녀사냥 속에서도 그녀의 글은, 그림은, 무엇보다도 그녀는 불타거나 사라지지 않았다.

1년 뒤인 2019년, 나혜석의 여행기가 또다른 책으로 출간되었다. 제목은 <꽃의 파리행>. 나혜석이 연재하던 여행기의 원제목을 가져다 썼다. 표지 역시 나혜석의 그림으로 채워졌다. 그녀가 떠난 자리, 그녀가 남긴 것들은 그렇게 꽃이 되었다.

나혜석이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정치적 참여도 활발히 했던 것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3.1운동 당시 나혜석은 여성참여단체를 조직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신문에도 부지런히 칼럼을 기고하여 여성이 사람으로서, 자신으로서 살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유럽여행 중에도 나혜석의 시선은 여성의 권리, 생존권, 참정권을 향해 있었다. 사회 구조가 갖춰지지 않으면 여성이, 무엇보다도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서 자유롭게 살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성의 날 우리가 주고 받는 장미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LD**

“외로움과 싸우다 객사하다
가자! 파리로.
살려 가지 말고 죽으러 가자.
나를 죽인 곳은 파리다.
나를 정말 여성으로 만들어준 곳도 파리다.
나는 파리가 죽으려다.
찾을 것도, 만날 것도, 얻을 것도 없다.
돌아올 것도 없다. 영구히 가자.
과거와 현재 공인 나는 미래로 가자.

사 남매 아이들아!
에미를 원망치 말고 사회제도와 잘못된 도덕과 법률과 인습을 원망하라.
네 에미는 과도기에 선각자로 그 운명의 줄에 희생된 자였더니라.
후일, 외교관이 되어 파리 오거든
네 에미의 묘를 찾아 꽃 한 송이 꽂아다오.” - 나혜석, <꽃의 파리행> 중에서

“탐험하는 자가 없으면 그 길은 영원히 못 갈 것이요.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역사를 무엇으로 꾸미잔 말이오.
다행히 우리 조선 여자 중에 누구라도 가치 있는 욕을 먹는 자 있다 하면
우리는 안심ियो.” - 나혜석

가격대별 추천 선물 리스트

선물할 일이 많은 5월, 감사의 마음을 떠올리기보다 먼저 얇은 지갑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

고민할 당신을 위해 가격대별 추천 선물 리스트를 정리했다.

UNDER
100,000won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세트
국민 파운데이션과 브러쉬로 구성되어 누구에게나 환영받을 선물 세트.
블랙 파운데이션 + 파운데이션 브러쉬02 MATTE로 구성. 7만5천원.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2중 기획
자연의 생명력과 에너지를 듬뿍 담아 생기 넘치는 피부를 선사해주는 기본 세트.
오가니언스 워터 180ml + 오가니언스 에멀전 150ml + 오가니언스 워터 30ml + 오가니언스 에멀전 30ml + 내추럴 리치 클렌징 폼 30ml로 구성. 6만원.



프리메라 망고버터 컴포팅 바디 2중 기획
풍부한 보습감과 기본 좋아지는 향기가 사워하는 시간을 즐겁게 만들어줄 오감 만족 기획 세트.
망고버터 바디 워시 380ml + 망고버터 바디로션 380ml + 컴포팅 바디 워시 80ml + 컴포팅 바디로션 80ml로 구성. 6만원.

100,000won
~300,000won



바이탈뷰티 프로바이오 더블 기획 세트
장의 건강한 리듬을 찾아주는 100억 복합 프로바이옥스.
프로바이오(1g×60포)×2+10일 체험분 11만원.



아이오페 탄력 & 주름 케어 2중 스페셜 세트
아이오페의 대표 히어로 제품인 레티놀 포링클 0.1%와 에이스비타민 C 25로 구성된 알찬 세트.
레티놀 포링클 0.1% 30ml + 에이스비타민 C 25 23g + 에이스비타민 C 25 4.5g + UV설프드 스킨 에너지션 10ml 16만원.



설화수 자음 2중 퍼펙팅 세트
설화수의 힘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기초 라인 세트.
자음수 퍼펙팅 125ml + 자음유액 퍼펙팅 125ml + 자음수 퍼펙팅 15ml + 자음유액 퍼펙팅 15ml + 탄력영양크림 15ml + 자음생 에센스 5ml로 구성. 12만원.

OVER
300,000won



바이탈뷰티 명작수 패밀리 세트
젊은 활기를 되찾아줄 건강 보조 식품으로 부모님 선물로 최고다.
명작수 20g×150캡슐. 68만원.



설화수 윤조에센스 3중 퍼펙팅 세트
모든 여성이 선망하는 국민 에센스인 윤조에센스 퍼펙팅을 중심으로 구성.
자음수 퍼펙팅 125ml + 자음유액 퍼펙팅 125ml + 윤조에센스 퍼펙팅 90ml + 자음생수 30ml + 자음생유액 30ml + 자음생크림 5ml + 자음생에센스 5ml로 구성. 25만원.



설화수 진설 2중 세트
진귀한 원료에 정성을 더해 완성한 럭셔리 스킨케어 라인.
진설수 125ml + 진설유액 125ml + 진설아이크림 4ml + 진설크림 4ml + 진설아이에센스 4ml + 진설마스크 15ml로 구성. 26만5천원.



헤라 에이지어웨이 3중 세트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약속하는 에이지어웨이를 중심으로 한 알찬 구성.
에이지어웨이 바이탈라이징 워터 150ml + 에이지어웨이 바이탈라이징 에멀전 120ml + 바이탈라이징 크림 (30ml + 5ml) + 바이탈라이징 워터 30ml + 바이탈라이징 에멀전 30ml + 모디피어 5ml + 셀에센스 30ml로 구성. 12만원.



아모에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타겟티드 아이 케어 컬렉션 세트
아이 케어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여심을 자극하는 선물 세트.
타임 레스폰스 아이크림 30ml + 타임 레스폰스 아이크림 3ml + 타임 레스폰스 세럼 5ml + 타임 레스폰스 크림 8ml + 타임 레스폰스 타겟티드 아이마스크 5매로 구성. 50만원.



헤라 시그니아 스페셜 기프트 4중 세트
헤라 시그니아 라인의 제품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세트.
시그니아 워터 180ml + 시그니아 에멀전 150ml + 시그니아 세럼 50ml + 시그니아 크림 60ml + 시그니아 워터 75ml + 시그니아 아이트리트먼트 15ml + 시그니아 앰플 3개 + 시그니아 핸드크림 60ml로 구성. 68만5천원.

Coming Soon

30년 차나무 뿌리의 힘으로
탄력선은 살려주고, 주름선은 잡아준다
라인에이징 코렉터



AMOREPACIFIC